

인격주의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

구 본 만

가톨릭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인격 성숙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구현 가능한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0년 대 중반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인성은 인간의 본성, 품성, 개성, 인간됨, 성격, 전인성, 도덕성, 덕, 도덕적 인격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된 개념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성품이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 대부분의 인성 개념은 인간에 대한 현상학적·사회과학적 이해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육체적·감각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정신적 존재이기도 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바탕을 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는 ‘인격’이고, 따라서 인성교육은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적 성숙에 핵심 가치를 두는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인격의 고유한 속성인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의 세 차원을 통합적으로 계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핵심 실천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협력’과 ‘봉사’인데, 그 이유는 협력과 봉사가 인격의 세 차원을 통합적으로 계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 이면서 깨달음-실천-습성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학교 인성교육의 한 가지 모형으로서 협력과 봉사에 기초한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협력과 봉사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교과와 비교과를 일련의 트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앎(깨달음)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을 개발해 나가도록 편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핵심주제어: 인격주의 인성교육, 인격주의, 인성교육,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 협력, 봉사, 인성교육과정

* 본 연구는 2014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5년 11월 13일,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2015년의 대한민국 교육계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제정 2015.1.20., 시행 2015.7.21.]의 탄력을 받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최근 20년 간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 중 많은 수가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들에서 제시한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은 대부분 인간에 대한 현상학적·사회과학적 시각에 근거해서 정의되고 있다.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는 교육의 내용, 방법,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상학적·사회과학적 이해는 인간을 이성과 자유의 본성에 따라 주체성과 공동체성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 두 가지 특성만으로 파악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육체적·감각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정신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체적·감각적 차원뿐 아니라 영적·정신적 차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인간다운 고유한 성품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도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성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성품을 표현한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과 공유하는 육체적·감각적 차원보다는 영적·정신적 차원이 인성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연구는 현상학적·사회과학적 인성 이해를 넘어서서 인성과 인성교육의 풍부한 의미를 고찰하고, 그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성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우선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II장). 이어서 인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인격 및 전인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오늘날 한국 학교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교육의 개념을 모색할 것이다(III장). 이어서 인격 성숙에 초점을 맞춘 인격주의 인성교육의 세 차원을 살펴보고(IV장), 성숙하고 완전한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V장).

II. 한국 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담론: 선행연구고찰

한국에서의 인성교육은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인성교육 담론은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직속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과 연관이 깊다.¹⁾ 흔히 ‘5·31 교육개혁방안’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세계화, 정보화 교육과 함께 ‘실천위주 인성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²⁾ 이후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학교 급별 인성교육 실태 분석, 교과와 비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품성, 사람됨, 개성, 성격, 전인성, 도덕성, 덕, 도덕적 인격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인성을 해석하였지만,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인성 개념이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성품이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⁵⁾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20년 동안 연구된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의 회복이나 계발, 그리고 그 핵심 방법으로 ‘깨달음’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 차원’의 관점이다.⁶⁾ 주로 종교적 관점과 전

- 1) 김민수,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 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 8(4)(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71쪽. 조난심은 인격교육, 전인교육, 인간교육, 도덕교육 등의 용어가 5·31 교육 개혁 추진 이후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었다고 보았다. 조난심, 「학교 인격교육의 재미미」, 『교육철학연구』 35(2)(한국교육철학학회, 2013), 98쪽.
- 2) 장성모, 「人性의 개념과 人性教育」, 『초등교육연구』 10(1)(한국초등교육학회, 1996), 5-7쪽.
- 3) 이 시기에는 학자들의 개별연구뿐 아니라 교육 관련 기관의 연구과제 형태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재춘,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12); 양정실·조난심·박소영·장근주·은지용,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이명준·진의남·서민철·김정우·김병준·박혜정·이주연,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정창우,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2013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2013); 천세영·김왕준·성기욱·정일화·김수아,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윤신덕,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12); 현주·이혜영·한미영·서덕희·류덕엽,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한국교육개발원, 2013); 현주·최상근·차성현·류덕엽·이혜경,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2009).
- 4) 천세영 외는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천세영 외, 앞의 글, 43쪽 참조.
- 5) 강선보·박의수·김귀성·송순재·정윤경·김영래·고미숙,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8), 13쪽; 이석호, 「도덕·윤리 교육으로서의 人性教育의 의미와 방법」,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2(1)(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2004), 8-11쪽; 정창우, 앞의 글, 11쪽; 홍석영, 「인성 개념 및 인성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등교육연구』 25(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3), 191쪽.

통 철학적 관점이 여기에 속한다. 이 관점은 인성을 인간의 타고난 혹은 내재된 본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본성을 온전히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인성교육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은 인간 본성의 내재적·초월적 차원에 관심을 갖는다. 즉 인간은 현상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초월적 본성을 갖는데, 그러한 본성을 온전히 회복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재적·초월적 본성에 대한 관심은 주로 종교의 인성 관점에서 드러난다. 불교의 불성, 그리스도교의 영성, 도교의 자연성, 유교의 심(心)·성(性)·정(情)·의(意) 등이 그러하다.⁷⁾ 종교는 이 초월성이 존재의 근본 원리이며 모든 활동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초월성에 대한 강조는 동·서양의 종교에게서 모두 발견되지만, 절대자와의 관계성과 관련해서는 동·서양의 종교가 다른 관점을 취한다. 동양의 종교는 주로 초월적 본성의 내재성을 강조하지만,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신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초월성을 이해한다.⁸⁾

서양의 전통 철학 또한 인성교육을 인간의 내재적 본성이나 성품을 계발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플라톤은 영혼이 자기응시를 통해 이데아를 상기하여 육체로부터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인간의 완성으로 이해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이성, 습관의 조화를 통해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의 경우, 감각과 감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이성의 확립을 통해 인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고, 셸러는 이성, 감성, 의지의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인간완성을 이해하였다.⁹⁾

인간의 내재적 본성이나 성품 등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인성 개념은 자기계발이나 깨달음, 수양과 같은 총체적이고 내면적인 변화에 주안점을 둔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인성교육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과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차원’의 관점이다. 서양의 현대 철학을 비롯한 현대 학문의 관점이 여기에 속한다. 이 관점은 인성을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자기 자신이나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을 통해 인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이성적·합리적 측면보다는 정의적·행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성교육도 내재적 본성의 계발 보다는 상황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생태주의나 페미니즘, 홀리스틱주의 등이 이러한 관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관점들에는 심리학적 관점과 도덕교육의 관점이 있다. 인성을 ‘성격’(personality)으로 이해하는 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성격은 ‘좋다’ 혹은 ‘나

6) 천세영 외는 기존의 인성 논의가 개인적 차원이나 타인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으로 정의되어 왔다고 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을 도덕성(개인적 요소) 차원, 사회적 차원, 감성적 차원의 세 가지로 보았다. 천세영 외, 앞의 글, 45쪽.

7) 강선보 외, 앞의 글, 4-7쪽.

8) 위의 글, 12쪽.

9) 위의 글, 7-9쪽.

10) 위의 글, 10쪽.

쁘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선천적인 기질이지만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계발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징이다.¹¹⁾ 인성을 '도덕적 인격'으로 보는 관점은 동·서양의 전통적인 덕 윤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관점은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과 인격교육 및 도덕교육에서 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관점으로 가치나 덕성, 도덕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성은 인간본성의 고정된 의미이고 인격은 지·정·의의 모든 정신활동과 도덕적 가치를 담지한 주체로서 변화가능하고 고정되지 않은 의미이기에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¹²⁾ 이처럼 인성을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의적·행동적 측면에서 다양한 덕목을 실천하여 품성을 함양해 나가는 것을 중시한다.¹³⁾

이러한 두 관점은 인성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이 두 관점은 인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인성의 다른 두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인성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내재적 본성이나 성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품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을 통해 계발되기 때문이다. 즉, 인성은 개인의 내면에 고정되어 있는 완성된 성품이 아니라 노력과 실천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은 인성교육을 통해 계발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용어가 '덕'(virtue)이다. 덕이란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경향성과 능력¹⁴⁾ 혹은 보편적 가치가 성품화된 상태를 지칭한다.¹⁵⁾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인간 본성이 있고, 사람은 이 본성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훈련과 도야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덕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¹⁶⁾

덕성 중심의 인성교육은 핵심 덕목을 선정하고 이를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 등의 네 가지 주요한 덕을 강조했던 서구 덕 윤리학 전통이나 인·의·예·지·신 등의 덕목을 강조한 동양의 덕 윤리학 전통은 오늘날 도덕심리학과 인격교육에 영향을 주어 인성교육을 덕교육적으로 접근하도록 이끌었다.¹⁷⁾ 따라서 이러한 접근에서는 핵심 덕목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덕목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실천위주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에는 어떤 과제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 관점으로 교육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¹⁸⁾

11) 이철주, 「실천지향의 인성 개념 탐구」, 『윤리교육연구』 34(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324쪽.

12) 최신일, 「인간, 인격, 그리고 인격교육」, 『초등교육연구』 27(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190-201쪽.

13) 이석호, 앞의 글, 13쪽.

14) 위의 글, 11-12쪽.

15) 정창우, 앞의 글, 73쪽.

16) 이석호, 앞의 글, 13쪽.

17) 정창우, 앞의 글, 14-25쪽.

18) 위의 글, 41-42쪽. 역량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

최근에 강조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y)에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자연친화능력 등이 있다.¹⁹⁾ 이러한 점은 기존의 덕목 함양 인성교육이 덕목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성교육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핵심 덕목과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을 통해 덕성이나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성교육에 관한 최근 20년 동안의 연구 결과는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 개념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다.²⁰⁾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²¹⁾ 이 정의는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고 있다.

우선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인 ‘내재적 본성’과 ‘깨달음’의 중요성 등 ‘개인적 차원’을 함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의는 인간이 본성상 자기완성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체적으로 자기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서 개별성과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어지는 정의인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두 번째 관점인 ‘관계성’과 ‘후천적 교육’의 중요성 등 ‘사회적 차원’을 함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본성상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닫힌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타자에게 자신을 개방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간 본성에 따른 정의이다. 공동체적 본성을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존재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덕목’을 기르는 것에 두고, 8개의 ‘핵심

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9월 23일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6개의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2015.9.23.), 2쪽). 또한 새 교육과정은 총론의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과에 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도 개발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2015.9.23.), 10쪽;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Q&A」(2015.9.23.), 3쪽).

19) 이철주, 앞의 글, 323쪽; 정창우, 앞의 글, 46-47쪽.

20)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제정 2015.1.20., 시행 2015.7.21.].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인성교육의 정의,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운영 기준, 인성교육과정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다.

21)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정의).

가치·덕목’(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제시하였다. 덕목의 제시는 인성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덕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보이며, 그러한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제시한 것은 최근 들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²²⁾

요컨대, 《인성교육진흥법》의 정의에는 한국에서 인성교육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 개념이 한국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교육에 가장 적합한 개념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에는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이 정의가 인간에 대한 현상학적·사회과학적 이해에 주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주체성과 공동체성에서 더 나아가 인성교육을 완전하게 정의해 줄 인성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없을까? 인간에게만 부여하는 ‘존엄성’이라는 용어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기에 인성교육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 존엄성은 육체적·감각적 차원보다는 영적·정신적 차원에 기반을 둔 용어이며 인간이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격은 한국 공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성과 인성교육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인성과 인격, 그리고 전인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인성, 인격, 전인교육의 관계

인성, 인격, 전인, 이 세 개념은 모두 인간의 총체성이나 본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봤듯이 인성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나 고유한 성품과 관련된다. 고유한 성품은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 등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본성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인성은 인간을 동물이나 식물과 구별해주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고유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유기체이며 단일체이다. 즉 인간의 행위는 지성, 감성, 의지, 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성은 ‘인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용어인 지성, 감성, 도덕성, 사회성, 초월성 등의 개별 특성을 지칭한다기보

22)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쪽.

다는 이러한 특성 모두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럴 때 인성은 '온전한 전체로서의 인간'임을 드러내는 '무엇'이 된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본성은 '이성'과 '자유'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의 본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이 '인격'적 존재라는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이성과 자유는 인격의 고유한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성은 '인격' 개념과 연관된다. 그리고 지성, 감성, 도덕성, 사회성, 초월성, 의지 등이 통합된 전체는 다른 말로 '전인'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인성은 '전인'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이렇게 볼 때, 인성이라는 용어는 '인격'과 '전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두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²³⁾

우선 전인은 한자어로는 全人, 영어로는 the whole person 혹은 a perfect person 등으로 표현된다. 즉, '온전한 인간' 혹은 '완전한 인간'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전인을 “지(知)·정(情)·의(意)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였고,²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⁵⁾ 또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전인을 “몸과 마음 곧 지·덕·체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라고 표현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정의는 한국 사회의 인간관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인격에 바탕을 둔 인간관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전인교육도 인격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렇게 볼 때, 전인은 '완전한 인격'으로, 전인교육은 '완전한 인격을 기르는 교육'으로 환원 가능하다.²⁸⁾

인성과 전인이 모두 인격이란 개념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인격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인성과 인성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3) 박정진·하병학·구본만·강숙희·고정화·유청·이소연·전선영·최은선·이지연, 「가톨릭대학교 인성중심의 선발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14, 6-7쪽.

24) “전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5.10.20. 내려 받음).

25) “전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5411쪽.

26) 아직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 총론>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 총론>의 내용을 참고하면, 총론은 전인적 성장을 “몸과 마음 곧 智·德·體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1쪽.

27) 전인교육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직접적으로 '인격'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교육학용어사전은 전인교육을 “지·정·의(知情意)가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고(“전인교육”,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하우, 1995), 590쪽.),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전인교육을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 등을 조화롭게 하여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전인교육”,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5411쪽.).

28)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그 자체로 이성적 본성, 자유와 책임을 수반한 행위 결정, 관계성, 초월성 등의 모든 특성이 통합된 완전한 전체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인격이란 무엇인가?²⁹⁾ 인격을 지칭하는 용어인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는 가면이나 배우의 역할을 지칭하는 단어인 그리스어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의 번역어였지만,³⁰⁾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 수용되면서 ‘신적 위격’, 즉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신학적·존재론적 개념으로 의미가 규정되었고, 이 의미가 인간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비적으로 적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¹⁾ 이성적 본성, 개별성, 자립성, 완전성, 불양도성, 유일회성, 존엄성 등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에 의해 인격의 중요한 속성들로 연구되었고,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인격 개념의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³²⁾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인격 개념 논의 역사는 인격의 중요한 네 가지 속성을 보여준다.³³⁾ 이 네 가지 속성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드러내기에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첫째, 인격은 인간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의 빛으로 깨닫고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이다.³⁴⁾ 개별성과 독자성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결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지성, 감성, 의지, 영성 등 인간의 모든 측면이 개발된 총체적 인격 함양의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암시한다.

둘째, 인격은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적’·‘공동체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타자에게 열려있으며 관계를 맺는 공동체적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관계성과 공동체성은 인간이 타자, 즉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셋째, 인격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신적 위격에서 유래한 인격 개념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인간의 기원을 보여준다. 즉 인간 인격은 하느님의 모상성을 드러내고, 이 기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존재 자체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존

29) 인격은 철학, 신학, 윤리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persona’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0) 한스 루터, 『인격과 윤리』, 안명옥 옮김, 『가톨릭사상총서』 5(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00), 16쪽.

31)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가톨릭철학』 17(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103-107쪽. 인격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박승찬, 「인격 개념의 근원에 대한 탐구: 그리스도교 신학과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13(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7), 83-119쪽 참조.

32) 정의채, 『존재의 근거문제』(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5), 429쪽;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한국학술정보, 2006), 218-219쪽.

33) 구본만, 앞의 글, 107-109쪽.

34) 정의채, 앞의 책, 438쪽.

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넷째, 인격은 인간이 이성적 본성, 자유로운 행위 결정, 관계성, 초월성 등의 모든 특성이 통합된 ‘완전한’·‘전인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격의 모든 특성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은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핵심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격의 네 가지 속성은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의 의미를 확장시켜준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인성교육의 두 가지 개념은 인격의 첫째 속성인 ‘주체성’(개별성, 독자성, 자율성, 책임성을 포함한 개념)과 둘째 속성인 ‘공동체성’(관계성, 소통능력, 공감능력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요약된다. 만약 인성교육을 이 두 가지 개념으로만 정의한다면, 인성교육의 방향은 이 두 가지를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데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주체적이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인 동시에 존엄성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존엄성과 완전함의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도 인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체적 특성인 독립성, 책임성과 공동체적 특성인 군집성, 소통능력 등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점이 존엄성과 완전함의 추구에 있다면, 인성교육은 존엄성과 완전함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격은 인성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인격 형성’ 교육은 인성교육의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인격 형성 교육은 지성, 감성, 도덕성, 사회성, 영성 등이 통합된 완전한 전체로서의 인간, 즉 전인을 양성하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이 교육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방향을 깨닫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고유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인식과 직업의 선택과 투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³⁵⁾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인성-인격-전인은 인간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개념으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지·정·의 혹은 지·덕·체가 통합된 전인, 즉 인격적인 성숙과 완전함에 도달하도록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성숙하고 완전한 인격은 인격의 속성인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 완전성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계발된 인격을 의미한다.³⁶⁾ 학교에서 이

35) 박정진 외, 앞의 글, 10쪽.

36) 인격의 총체적 개발과 관련하여 서구 인격교육의 흐름은 전통적으로 ‘지성 중심의 인격교육’과 ‘덕성 중심의 인격교육’이 강조된 추세였고, 최근에 와서는 이 둘의 통합을 강조하는 ‘통합적 인격교육’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인격교육은 1) 지식의 통합에 기여하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2) 정서·의지·행동의 통합에 기여하는 ‘덕성 함양’의 유기적 통합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구분만, 앞의 글, 110-112쪽.

루어지는 인성교육은 개별 덕목이나 품성 등의 인성요소를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주체가 되는 인간의 인격적 성숙과 완전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격적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을 ‘인격주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 개념의 애매모호함을 탈피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가톨릭 학교 인성교육에 가장 적합한 개념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격이 인간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인간학 개념인 동시에,³⁷⁾ 그리스도교의 신학적·존재론적인 개념을 그 근원에 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IV. 인격주의 인성교육의 세 차원

완전한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춘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첫째,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가톨릭 학교의 특수사명인 ‘복음화’와 일반사명인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톨릭 학교의 전인교육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복음화를 통한 전인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은 “전인, 즉 완전한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완전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인격의 완전성에도달한 인간, 다른 말로 인격이 총체적으로 양성된 인간을 의미한다.”³⁸⁾ 따라서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가톨릭 학교가 고유의 사명을 구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성 함양을 인격의 성숙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특정 교과나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심이거나 도덕이나 사회 등 특정 교과 중심이다. 이는 인성교육이 특별한 덕목을 함양하는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제2조(정의)에서 인성교육을 정의한 다음,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여덟 개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인성교육은 이 여덟 개의 가치나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개별 덕목의 함양은 덕을 갖춘 인격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덕목을 제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을 한정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제시된 특정 덕목이 인성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다양한 덕목을 모두

37)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216쪽.

38) 구본만, 앞의 글, 113쪽.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갖는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특정 덕목 중심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총체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이 인격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과 활동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과목에 상관 없이 모든 교사가 학생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공동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고, 학교의 문화도 인성 친화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이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과정의 핵심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실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셋째,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인성요소의 결합이나 총합을 통해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가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성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법적 관점은 인성을 한 개인이 소유한 상이한 인성요소 또는 특성들의 총화로 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한 개인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인성의 구성요소들은 분리나 통합이 가능한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인성의 상이한 측면이나 차원을 설명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³⁹⁾

인성에 대한 관점은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법적 관점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한다면, 인성의 구성요소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기저에는 필요한 인성요소들이 갖추어지면 이 요소들이 학생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인성은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총합이 아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상이한 측면이 조각처럼 맞춰진 결합체가 아니라 이 모든 측면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이다. 따라서 인성은 분리되거나 총합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인성교육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인격적 완전성, 즉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격은 인간의 모든 기능이 통합된 완전한 전체로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의 기본적 속성을 지닌다. 첫째는 이성적 본성을 갖고 윤리적 행위 결정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서의 ‘개별성’이고, 둘째는 타자에게 열려있으며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공동체성’이며, 셋째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자녀로서의 ‘존엄성’이고, 넷째는 인간적인 모든 특성이 통합된 ‘완전한 전체성’이다.⁴⁰⁾ 이 속성은 인격의 상이한 차원을 설명하는 개념적인 구분이지 인격 자체가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네 가지 속성에서 네 번째 속성은 주체성-공동체성-존엄성이 통합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외하면,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은 인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차원이 될 수 있다. 이 세 차원은 인격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격적 성숙은 곧 이 세 차원의 성숙과 연관

39) 장성모, 앞의 글, 7-9쪽.

40) 구분만, 앞의 글, 124쪽.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방향은 이 세 차원의 총체적 계발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정향될 필요가 있다.

인격의 세 차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주체성’이다. 주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삶에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역량이 필요하다.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확립한 가치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역량의 확립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자율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공동체성’이다. 전인은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자율적 존재인 동시에 항상 타인에게 열려 있으며,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이 맺는 관계가 모두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 존중, 수용, 배려, 나눔, 협력, 신뢰, 사랑 등을 특징으로 갖는데, 이러한 특징은 공동체의 기본 속성이다. 반면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는 무시, 배척, 무례, 이기주의, 배타적 경쟁, 불신, 미움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관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을 ‘관계성’으로 지칭하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지칭한 것은 공동체가 ‘인격적 관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며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형태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맺는 인격적 관계성이다. 예를 들면, 가족, 친구, 동료, 스승, 상사 등에게 열려 있으면서 공감과 배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 형태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맺는 인격적 관계성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에 속하는 가난한 이들, 소외 받은 이들, 노인들, 병자들 등을 존중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두 형태는 열려 있음과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동체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핵심 가치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웃들에게 열려 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가능한 모습이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사명을 느끼는 이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이들은 대부분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에 일관된 삶의 모습이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인격적인 ‘훌륭함’과 ‘존엄성’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⁴¹⁾

여기서 세 번째 핵심 개념인 ‘존엄성’이 나온다. 존엄성은 인격적인 훌륭함과 숭고함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실천하며 자신의 삶의 원칙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존엄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즉 지성과 덕성의 통합을 통해 덕이 있는 존재, 인격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근대와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인간 존엄성이 이성과 자유를 통해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갖는 인격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⁴²⁾ 가톨릭의 가르침은 인간 존엄성을 근거 짓는 이성과 자유 중심의 ‘자연법적 논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연법적 논증을 보충해 줄 ‘신학적 논증’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근원과 최종 근거를 제시하였다.⁴³⁾ 존엄성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을 말한다.⁴⁴⁾ 그런데 존엄성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누군가에 의해 질서 지위될 때 가능하다. 즉,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한 분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의 특별한 지위와 존엄성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⁴⁵⁾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성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이해할 수 있고, 창조질서의 실현에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엄성을 지니지만, 창조질서의 보편적 원리인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실천할 때 존엄성은 더욱 빛나게 된다.

두 번째 차원인 공동체성에서는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인 ‘윤리성’이 강조되는 한편, 세 번째 차원인 존엄성에서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지칭하는 ‘영성’이 강조된다.⁴⁶⁾ 이 두 개념은 타자에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대상과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격적인 훌륭함과 존엄성은 인격의 완전함을 드러낸다. 존엄성은 초월적 가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주체성과 공동체성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될 때 드러나는 것으로, 인간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인격의 세 차원,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의 지향점과 핵심 가치, 역량 및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1) 박정진 외, 앞의 글, 53-54쪽.

42)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종교교육학연구』 39(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29쪽; 김용해,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근거 짓는 작업에서의 문제들」, 『사회와 철학』 6(서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3), 220-235쪽.

43) 국제신학위원회, 「인간 존엄성과 인권」, 『사목』 100(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126-127쪽; 유경춘, 「인권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누리와 말씀』 12(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2), 163-164쪽.

44) “존엄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5.10.27. 내려 받음).

45)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30쪽.

46)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109쪽.

〈표 1〉 인격의 세 차원

차원	지향점	핵심 가치	역량 및 주요 내용
주체성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자율적 존재	자아존중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진실성 도덕성 창의성	•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인식과 헌신 •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 생명 중심 가치관 •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성 (인격적 관계성-윤리성)	타인에게 열려 있으며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	존중 수용 배려 나눔 공감 소통 협력	• 인격적 관계 형성 역량 • 개방적·협력적 관계 형성 역량 •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역량: 리더십 & 팔로워십
존엄성⁴⁷⁾ (인격적 관계성-영성)	초월적 가치 추구,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적 존재	사랑 용서 생명 헌신 봉사 영성 지행일치	• 초월적 가치에 대한 사랑: 진·선·미에 대한 사랑, 보편적 도덕 원리 추구 • 삶의 원칙이 확립된 존재: 생명·정의 중심 • 삶의 원칙과 행동의 일관성: 지성(앎)과 덕성(삶)의 통합 역량 • 인격적 완전함 실현: 약자에 대한 헌신과 봉사

*출처: 박정진·하병학·구본만·강숙희·고정화·유청·이소연·전선영·최은선·이지연, 「가톨릭대학교 인성중심의 선발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14, 53쪽을 참조하여 수정.

47) 엄밀히 말하면, 세 번째 차원인 ‘존엄성’은 다른 두 차원, ‘주체성’, ‘공동체성’과 동일한 범주는 아니다.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임을 드러내는 인격 자체의 품위를 말하고, 주체성과 공동체성은 ‘이성’과 ‘자유지’에 따른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차원은 인격적 성숙을 위해 동시에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동일한 범주에서 설명한다.

V. 인격주의에 기초한 가톨릭 학교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

1. 두 가지 핵심 방법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인격적인 완전함에 도달하도록 양성하는 교육이다. 성숙하고 완전한 인격은 인격의 세 차원,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이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계발된 인격을 의미한다. 인격의 총체적 계발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핵심 방법은 ‘협력’과 ‘봉사’이다. 이 두 가지를 인격주의 인성교육의 핵심 방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협력과 봉사는 ‘인격의 세 차원을 통합적으로 계발’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협력은 교과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내용과 다양한 사회적 지식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와 함께 탐구하는 동안 주체성과 공동체성, 창의성과 인격적 관계성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인성을 함양해 나가는 중요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협력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목적이 있는 관계성이다.⁴⁸⁾ 진정한 협력 관계는 책임을 의미 있게 공유할 때, 즉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기여 없이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⁴⁹⁾ 따라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과와 비교과과정에 구축하는 것은 학생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주체성과 공동체성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협력 과정에서 ‘창의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의성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 인지적 측면의 창의적 사고 요인과 민감성, 자발성, 개방성, 탐구심 등 정의적 측면의 창의적 성격 요인이 역동적으로 작용할 때 발휘되는 능력으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⁵⁰⁾ 협력이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면,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고와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문제해결 역량을 습득하면서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협력의 가치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은 교과교육 안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봉사는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체험을 통해 약자를 이해하고, 정신적·영적 가치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인성을 함양해 나가는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봉사는 주체성과 공동체성뿐 아니라 존엄성도 함양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봉사는

48) H. Rubin, *Collaborative leadership: Developing effective partnerships in communities and school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2002, p.17.

49) R. Martin, *The responsibility virus*, New York: Basic Books, 2002, p.66.

50) 신창호,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사, 2012, 134-152쪽.

주로 자신보다 약자이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우선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열린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봉사는 관심을 갖고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렇기에 학교 인성교육은 봉사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를 하는 중에 숭고한 가치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과 봉사는 ‘깨달음-실천-습성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이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실천이 따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인 앎’을 축적하거나, 습성화되지 않고 일시적인 정서적 유대감에 따른 행동을 일으키는 교육 방식은 올바른 인성교육의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인성교육은 인지적 사고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고(지성적 앎: 깨달음), 확립된 가치관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실천적 앎: 실천), 최종적으로 의식하지 않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존재적 앎: 습성화)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⁵¹⁾ 올바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실천으로, 실천이 습성화로 이어질 때 성숙한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²⁾ 그런데, 깨달음-실천-습성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깨달음 가치를 실천하는 중에 확신을 갖게 되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은 다시 실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는 중에 점진적으로 습성화된다. 따라서 깨달음-실천-습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협력과 봉사는 모든 교과와 비교과에서 깨달음과 실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 주는 탁월한 교육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51) 헌터(J.C. Hunter)에 따르면 학습에는 네 단계가 있다: 무의식 & 비숙련(1단계), 의식 & 비숙련(2단계), 의식 & 숙련(3단계), 무의식 & 숙련(4단계)(J.C. Hunter, *The Servant*, 김광수 옮김, 『서번트 리더십』(서울: 시대의 창, 2011), 232-238쪽.). 학습의 4단계는 다른 말로 ‘앎의 4단계’이기도 하다. 1단계는 ‘앎 이전’의 단계이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2단계는 ‘지성적 앎’의 단계이다.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배워서 알게 된 단계이지만 아직 체득된 단계는 아니다. 3단계는 ‘실천적 앎’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배워서 알게 된 내용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앎이 강화되고 능숙해지는 단계이다. 4단계는 ‘존재적 앎’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앎이 체득되어 무의식적으로 몸에서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운 상태라 할 수 있다(구본만, 「‘종교학’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 『종교교육학 연구』 41(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09쪽). 4단계 ‘존재적 앎’은 다른 말로 ‘인격적 앎’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격적 앎은 인지 수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의식과 정체성에 통합될 때 이루어진다(정창우, 「인성 교육에 대한 성찰과 도덕과 교육의 지향」, 『윤리연구』 77(한국윤리학회, 2010), 25쪽).

52) 토마스 리코나(Thomas Lickona)를 비롯한 현대 인격교육론자들은 도덕적 인격의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을 통합하는 인격교육을 강조했는데(금교영, 「한국 인성교육의 사례분석과 인격주의 윤리학적 반성(II): 한국 인성교육의 사례분석과 유기체론적 통합인성교육」, 『철학논총』 35(새한철학회, 2004), 44-46쪽; 유병열, 『도덕교육론』, 양서원, 2006, 212-216쪽), 인격의 세 기능인 지·정·의는 깨달음-실천-습성화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2. 학교 교육과정의 구조적 변화: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

이제 협력과 봉사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실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과정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모형은 학교 교육과정을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 모형은 <그림 1>처럼 협력과 봉사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교과와 비교과를 일련의 트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앎(깨달음)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핵심역량을 개발해 나가도록 편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을 두 가지 핵심 방향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모형이다.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지식과 기술의 전수’ 중심이었던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인격 함양’ 중심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⁵³⁾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인성교육, 협력, 봉사의 가치보다는 지식교육, 배타적 경쟁, 입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역량이 인지적·실천적 기술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동하여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면,⁵⁴⁾ 역량 개발은 교과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와 비교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맥락에서 협력과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은 교과 지식의 획득을 넘어서서 <표 1>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습득해 나가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격의 계발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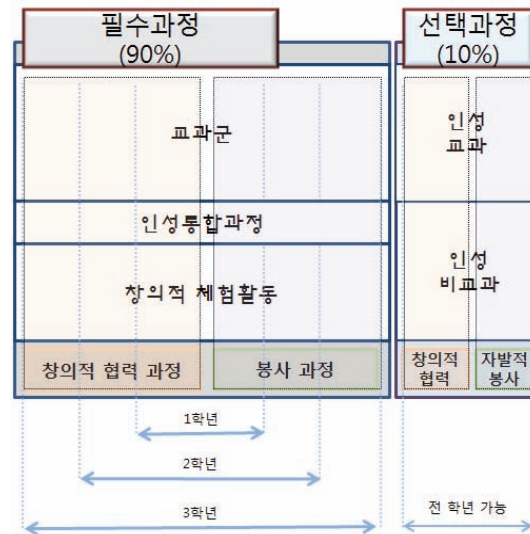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은 크게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된다. 필수과정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기본과정으로, 학교의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인성통합과정으로 구성된다. 필수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90%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여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모든 학생이 교육목적인 ‘인격적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과정은 필수과정을 통한 인격적 성숙을 넘어서서 탁월성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10%를 차지하도록 구성

53)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김재춘, 앞의 글, 101-140쪽 참조.

54) D. Rychen, *Investing in Competencies - But Which Competencies and for What?* A Contribution to the ANCLI/ACA Conference on Assessment Challenges for Democratic Society(Conference paper), Conference in Lyon, November 2003, p.3; 김재춘, 위의 글, 103쪽에서 재인용.

하여 이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덕’을 길러 나가도록 한다.



〈그림 1〉 협력과 봉사 중심의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

1) 필수과정

필수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교과과정에는 각 학교 급에 지정된 필수와 선택 과목이 포함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포함된다. ‘인성통합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이다. 기본 개념은 미리 선정된 학기별 인성교육 대주제를 해당학기에 가르친 교과목과 연계해서 배움(깨달음)과 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17주 수업으로 구성된 수업에서 적정한 시점을 선정하여 인성통합과정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총 17주 수업 중 16주까지는 개별 교과목 수업을 실시하고, 기말시험이 끝난 마지막 주(17째주) 한 주간 동안 이 과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성통합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대주제를 학기당 하나씩 6개를 선정한다. 그런 다음 그 학기에 개설되었던 교과목과 인성교육의 대주제를 연결시킨 소주제들로 한 주간(월-금)의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⁵⁵⁾ 인성교육의 대주제는 미리 선정되지만, 소주제는 해당학기에 교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표 2>는 인성교육의 대주제와 소주제의 한 가지 예시이다.

55) 구본만,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30(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83-85쪽.

〈표 2〉 인성교육의 대주제와 소주제 예시

학년	교과 인성교육 대주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체육	예술	선택
1	자연환경	환경파괴의 원인, 환경보존의 의미,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근거, 생태계 보존, 자연 공동체, 환경보존 실천							
	다문화	다문화의 의미,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 외국문화이해, 종교의 평화적 공존, 문화적 대화 실천							
2	공동체와 약자 배려	공동체의 의미, 가정·사회·인류 공동체, 동료애와 협력, 사회적 약자 배려의 필요성,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장애인·병자·가난한 이들 배려, 나눔의 삶, 사랑과 돌봄의 실천							
	정의와 평화	정의와 평화의 의미, 정의/평화의 필요성과 근거, 과학기술의 정의/평화에의 봉사, 공동선, 공정한 사회, 예술과 내적 평화, 종교와 세계평화, 정의/평화의 실천							
3	생명존중과 인권	생명의 의미, 인간 존엄성의 근거, 인권의 개념, 과학 발달의 생명 침해 문제, 생명윤리, 양성평등, 생명존중의 실천							
	가치관 확립	가치와 가치관,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 가치의 질서, 물질적 가치 vs. 정신적 가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덕을 갖춘 사람들, 덕이 있는 삶 실천							

*출처: 구본만,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30(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86쪽을 참조하여 수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통합과정으로 이루어진 필수과정은 협력과 봉사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우선 창의적 협력과 관련하여 기본 방향은 학생 주도의 ‘협력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협력 커뮤니티는 필수과정에 속하는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통합과정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과 내 협력활동으로는 모듈별로 과제연구, 토의·발표, 체험학습, 역할극,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신입생이 입학할 하면 4-6명으로 협력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동아리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자율, 봉사, 진로 활동)과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커뮤니티를 기본단위로 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입학식, 종업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수학여행, 축제, 체육대회, 체험학습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는 행사와 캠프, 문화체험, 캠페인, 종교행사 등 개별 학교의 고유 행사를 개최할 때 일부 학생들만 준비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참여만 하는 형태에서 모든 학생들이 협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준비와 참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협력 커뮤니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멘토 역할의 지도교사를 지정하는 방식이 좋다. 멘토 교사는 1년 동안 자율적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직접 지도하며 학생의 인성교육 담임 역할을 한다. 학년이 올라갈 때 협력 커뮤니티와 멘토 교사의 교체 혹은 유지는 학교의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

학급 단위로 구성된 인성통합과정은 협력 커뮤니티에 가장 적합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 학기에 배운 교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융·복합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협력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봉사와 관련하여 기본 방향은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학점화하여 이수단위에 포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봉사의 중요성은 학교뿐 아니라 기업에서까지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봉사가 인성교육의 핵심방법이라는 신념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할당된 시간이 적고, 교내 봉사만으로도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봉사의 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학점화하여 외부 기관에 찾아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시로 제시한 <표 2>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2학년 1학기의 인성교육 대주제가 ‘공동체와 약자 배려’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봉사의 또 하나의 방향은 학교의 행사 중 적합한 몇 가지를 봉사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사 활동으로는 방학을 활용하여 봉사 중심의 인성캠프를 진행하는 것, 축제를 격년제로 한 해는 봉사형태로 진행하고 다른 한 해는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 등이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주변 환경 정화나 문화재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2) 선택과정

선택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인성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신설하여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수의 교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양교과나 선택교과 영역에 인성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일례로, 생활과 인성, 생활과 윤리, 종교학, 인간학, 환경, 교육학 등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편성하여 인성 선택 교과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발적 봉사활동’을 교과 혹은 비교과과정에 신설하여 의무 봉사가 자발적 봉사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수과정에서 봉사를 의무로 이수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타인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발적 봉사활동과정을 선택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 찾아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학습 멘토링, 재능기부, 캠페인, 국제봉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봉사단’을 모집·구성하여 지속

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 및 직원의 모범을 배울 수 있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인격 성숙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90년 대 중반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대부분의 인성 개념은 인간에 대한 현상학적·사회과학적 이해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육체적·감각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정신적 존재이기도 한 인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바탕을 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는 ‘인격’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완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인격적 성숙에 핵심 가치를 두는 인격주의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격주의 인성교육은 인격의 고유한 특성인 주체성, 공동체성, 존엄성의 세 차원을 통합적으로 계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연구는 그 핵심 실천 방법으로 ‘협력’과 ‘봉사’를 제안하였고, 협력과 봉사에 기초한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학교교육 현실은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을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을 꿈꾸며 노력하는 활동이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적·기술적 성장을 넘어서서 학생의 인격적 성숙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인격주의 인성교육과정은 그러한 시도 중 하나이다. 교육 본연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시도를 통해 한국의 학교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강선보·박의수·김귀성·송순재·정윤경·김영래·고미숙,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8.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2015.9.23.).
- _____,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2015.9.23.).
- _____,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Q&A」(2015.9.23.).
-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제정 2015.1.20., 시행 2015.7.21.].
- 구본만, 「가톨릭 학교의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가톨릭철학』 17. 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 _____,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종교교육학연구』 39.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_____,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30.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 금교영, 「한국 인성교육의 사례분석과 인격주의 윤리학적 반성(II): 한국 인성교육의 사례분석과 유기체론적 통합인성교육」 『철학논총』 35. 새한철학회. 2004.
- 김민수,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 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김용해,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근거 짓는 작업에서의 문제들」 『사회와 철학』 6. 서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3.
- 김재춘,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 박승찬, 「인격 개념의 근원에 대한 탐구: 그리스도교 신학과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1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7.
- 박정진·하병학·구본만·강숙희·고정화·유청·이소연·전선영·최은선·이지연, 「가톨릭대학교 인성중심의 선발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14.
- 신창호,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사. 2012.
- 양정실·조난심·박소영·장근주·은지용,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 이명준·진의남·서민철·김정우·김병준·박혜정·이주연,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 이석호, 「도덕·윤리 교육으로서의 人性教育의 의미와 방법」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2(1).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2004.
- 이철주, 「실천지향의 인성 개념 탐구」 『윤리교육연구』 34.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 장성모, 「人性의 개념과 人性教育」 『초등교육연구』 10(1). 한국초등교육학회. 1996.
- “전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5411쪽.
- “전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5.

- 10.20. 내려 받음).
- “전인교육”,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우. 1995. 590쪽.
- 정의채, 『존재의 근거문제』.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5.
- 정창우, 「인성 교육에 대한 성찰과 도덕과 교육의 지향」 『윤리연구』 77. 한국윤리학회. 2010.
- _____,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2013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2013.
- 조난심, 「학교 인격교육의 재음미」 『교육철학연구』 35(2). 한국교육철학학회. 2013.
- 천세영 · 김왕준 · 성기옥 · 정일화 · 김수아,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 최신일, 「인간, 인격, 그리고 인격교육」. 『초등교육연구』 27. 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 한스 루터. 안명옥 옮김, 『인격과 윤리』. 가톨릭사상총서 5.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00.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윤신덕,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 현 주 · 이혜영 · 한미영 · 서덕희 · 류덕엽,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3.
- 현 주 · 최상근 · 차성현 · 류덕엽 · 이혜경,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9.
- 홍석영, 『인격주의 생명윤리학』. 한국학술정보. 2006.
- _____, 「인성 개념 및 인성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등교육연구』 25.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3.
- Hunter, J.C. *The Servant*. 김광수 옮김. 『서번트 리더십』. 서울: 시대의 창. 2011.
- Martin, R., *The responsibility virus*, New York: Basic Books, 2002.
- Rubin, H., *Collaborative leadership: Developing effective partnerships in communities and school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2002.

원고접수일: 2015년 11월 14일 심사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5일
연구자소개: 구본만

-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 ② 관심영역: 가톨릭 교육, 교육 리더십, 학교교육 향상
 - ③ 주요논저: 「가톨릭 학교의 학생인권 개념 모형과 실천 방향 모색」, 「가톨릭 학교의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공교육에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방향
모색」, 「교장의 도덕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교육 향상」외 다수
 - ④ E-mail: pachira-2@hanmail.net
-

Abstract

Practical Directions for Personalism-Oriented Humanity Education

Koo, Bonma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humanity educ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fostering the *persona*, and based on that concept, to suggest practical directions for humanity education in schools. To this end, I carried out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n humanity education in the Korean context from 1995 to 2015.

In Korean society, humanity is interpreted variously as human nature, character, individuality, humanism, personality, morality, virtue, and moral character. This concept of humanity, in a broad sense, implies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nature a human being pursues and fosters. However, it is a concept that is based not on the whole but on a phenomenological and social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In essence, this understanding is not all-encompassing because a human being is mental and spiritual as well as physical and sensuous. For this reason, *persona* is the word most appropriate to express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It follows, therefore, that humanity education aims to foster a whole and mature *persona*. In this sense, “personalism-oriented humanity education” would be a favorable direction for humanity education in schools.

Personalism-oriented humanity education can be implemented through the integral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s, namely, subjectivity, community, and dignity. This study suggests “collaboration” and “service” as key practical directions, as these are the methods best suited to the integral development of the three dimensions of *persona*, while simultaneously working as, effective approaches for awakening and practice.

Further, the study suggests a “curriculum for humanity education” based on collaboration and service as a model for humanity education in schools. Such a model can be operated as a study course consisting of a curriculum and an extracurriculum that focus on the two axes(collaboration and service). According to this approach, students will unconsciously develop key competencies through over the three-year course through the ongoing experience of knowing(awakening) and practicing.

Key words: personalism-oriented humanity education, personalism, humanity education, subjectivity, community, dignity, collaboration, service, curriculum for humanity education